

KIA “화두는 새 인물”

윤석민 해외 진출·마무리 부재 등 마운드 고민

3명 가능한 용병 영입·2차 드래프트 ‘발등의 불’

‘사람농사’가 KIA 타이거즈의 미래를 바꾼다.

2013 시즌이 유례없는 대추락으로 끝나면서 KIA에게 이번 겨울은 춥다. 무기력한 후반기를 보낸 선수들 앞에는 연봉 칼바람이 기다리고, 자리를 지키기는 했지만 선동열 감독도 가시방식에 앉아있다.

전폭적인 투자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구단 입장에서라도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머리 아픈 스포트라이트다.

새출발을 다짐한 KIA에게 ‘사람 농사’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다. 특히 외국인 선수 영입, 2차 드래프트는 발등의 불이다.

프로 10개 구단 단장들은 최근 창원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시즌 외국인 용병 보유 수 확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신생팀 NC와 10번째 구단인 KT를 제외한 8개 구단이 내년부터 1군 엔트리에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고, 2명의 선수를 출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NC와 KT는 4명 보유, 최대 3명 출전)

프로야구선수협회와의 논의, 이사회 상정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선수 운영 방안은 각 팀 전력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큰 변화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시즌 KIA는 용병 농사에서 흉작을 기록했다. 앤서니가 KIA 외국인 선수 사상 첫 20세이브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갑작스런 포지션 변동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도에 짐을 썼고, 소사·빌로우도 이렇다할 위력을 보여주질 못했다.

윤석민의 해외 진출과 마무리 부재 등 마운드 고민에 빠진 KIA에게는 알찬 투수 용병이 내년 시즌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전력이다. 외국인 선수 보유 방안 변화에 따른 타자 용병 영입도 전력의 변수다.

KIA는 이달 초 스카우트팀을 다시 해외로 보내 외국인 선수 영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전력분석팀 직원과 흥세완 타격 코치까지 동행했다. 용병 구상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오는 22일 열릴 2차 드래프트도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격년제로 진행되는 2차 드래프트는 각 구단이 보호선수 40인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다. 선수 보강과 2군에 머물고 있는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각 구단은 1라운드 3억원, 2라운드 2억원, 3라운드 1억원의 보상금을 주고 최대 3명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 명

단과 드래프트 과정은 비공개다.

2011년 첫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27명의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올 시즌 신인왕 이재학은 2차 드래프트를 통해 NC에서 잭팟을 터트린 케이스다. 생애 첫 우승반지를 낀 삼성 투수 신용준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IA에서 이적해 부활에 성공한 선수다. 지켜 봐온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잠재력 있는 유망주를 뺏길 수 있는 위기라는 점에서 2차 드래프트 전략이 필요하다.

KIA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단추, 알찬 스포트라이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본 챔피언을 이기겠다는 의지로 단무지를 깨무는 이병두. /연광뉴스

한국복싱 7년만의 도전장

손정오, WBA 뱅텀급 세계 챔피언 日 가메다와 대결

한국 선수로는 7년만에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하는 손정오(32)가 “한국 복싱을 위한 싸움”이라면서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

손정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체널A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복싱의 부활을 위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매 라운드 상대를 KO 시키겠다는 각오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9일 오후 10시부터 제주그랜드호텔 특설링에서 현 챔피언인 일본의 가메다 고키(27)와 타이틀을 다툰다.

한국 복싱에서는 2006년 12월 세계 복싱평의회(WBC) 페더급 챔피언을 탈환한 지인진(30)이 타이틀을 반납한 이후 챔피언이 탄생하지 않았다.

특히 WBA 뱅텀급에서는 홍수환과 박찬영, 문성길 이후 24년 만에 손정오가 타이틀에 도전한다.

2000년에 데뷔, 2001년 전한국권투신인왕전에서 플라이급 우승을 차지한 손정오는 플라이급, 슈퍼플라이급, 뱅텀급에서 한국챔피언에 올랐다.

고인이 된 최요삼의 스파링 파트너이기도 했던 그는 2007년 생계 때문에 복싱을 접었으나 2009년 복귀, 현재 WBA 랭킹 14위에 올라 있다.

김치를 씹어먹는 영상으로 도발한 가메다에 맞서 기자회견장에서 단무지를 깨물며 각오를 다진 손정오는 “가메다가 저를 쉽게 보는 것 같아 혼내줘야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내년을 기대하세요”

전남도체육회, 전국체전 선수단 해단

전남도체육회는 11일 도 체육회관 다목적 체육관에서 제94회 전국체전 참가 전남도 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

이번 체전에서 전남은 금 41, 은 49, 동 52개 총 142개의 메달(2만7295점)을 획득했으나 한 등위가 하강된 종합 13위의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백전노장 마라톤 박주영(35·한전)의 고향사랑 후원과 불링 여고부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 3년)의 4관왕 수립과 동시 5개 전종별 석권, 역대 이인우(안도수산고 3년)의 대회신기록 수립 등 눈부신 활약이 돋보였다.

이날 박주영과 이영승이 각각 남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 전남 조리과학고

불링팀과 무안군청 검도팀은 최우수 단체팀으로 선정됐다.

또한 이인우는 광주·전남체육회 출입기자단이 주는 ‘미래상’을 받았고, 고등부 자유형 69kg급 금메달리스트인 김성복(전남체고 2년)은 역대 국가대표 출신들로 구성된 광주·전남 태극회(회장 이순태)가 수여하는 태극회상을 수상했다.

박내영 사무처장은 “당초 목표했던 종합 11위 유지에 실패하고 지난해보다 한등위 추락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면서 “앞으로 운영개선을 통한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인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11일(한국시간) 500m 디비전A 2차 레이스에서 34초47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한 모태범.

‘빙속 삼총사’ 소치 金 예약

세계 新 이상화·꾸준한 모태범·한국 新 이승훈

월드컵 시리즈 첫 무대에서 금2·은2·동2 ‘합격점’

조집이 좋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빙속 신화’가 소치에서 재연될 기미가 보인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대들보인 이상화(24·서울시청), 모태범(24·대한항공), 이승훈(25·대한항공)이 새 시즌 월드컵 시리즈 첫 무대에서 ‘폐속 질주’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 선수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 3개와 은 2개를 합작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빙속 삼총사’라는 애칭을 얻었다. 이후 이들의 컨디션은 등락이 었겠지만 소

치 동계올림픽을 앞둔 올 시즌들어 나란히 페이스를 끌어올려 기대를 모은다.

9~11일 캐나다 켈거리에서 벌어진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빙속 삼총사’는 금 2개와 은 2개, 동 2개를 휩쓸었다.

선두에 선 것은 ‘빙속 여제’ 이상화다. 이상화는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6초74라는 기록으로 자신의 통산 두 번째 시니어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두 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올해 1월에 이어 10개월 사이에 두 차례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가파르게 상승세를 탄 페이스까지 떠올린다면 이상화의 적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1,000m에서도 4위에 오르며 입상권에 가까워지고 있다. 부상 없이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소치 올림픽에서 500m 2연패는 물론이고 한국 여자 스케이팅 사상 첫 ‘멀티 메달’도 기대할 만하다.

은메달 2개의 주인공은 모태범이다. 1차 레이스에서 34초523을 기록해 로날드 볼더(네덜란드·34초41)에게 0.11초 뒤진 모태범은 2차 레이스에서는 기록을 34초47로 끌어올렸다. 1위 터커 프레드릭스(미국·34초46)와의 격차도 0.01초에 불과했다.

모태범은 2011-2012시즌 한 차례 금메달과 세 번의 은메달, 두 번의 동메달로 500m 월드컵 랭킹 1위에 오르며 등 꾸준함을 갖췄다. 무명이던 2010년 밴쿠버에서의 깜짝 활

약과 2012~2013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에서 드러나듯 큰 경기에서의 집중력도 장점이다.

한동안 기록이 정체돼 있던 이승훈도 모태범 5,000m에서 한국신기록(6분07초04)을 세우며 컨디션을 질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승훈은 2009년 자신이 작성한 한국 기록을 7초 이상 단축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이승훈은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에 데뷔하자마자 세 차례나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탔다. 국제무대에 통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그 기세를 몰아 밴쿠버에서 금·은메달을 1개씩 거머쥔 바 있다. 이번에는 주형준·김철민(이상 한국체대)이라는 든든한 동료도 있다. 이승훈은 이들과 남자 팀추월에 출전해 동메달을 수확했다. /연광뉴스

이대로만 가다오

심석희, 쇼트트랙 월드컵 3차 3관왕

한국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16·세화여고)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월드컵 시리즈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심석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1,000m와 3,000m 계주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여자 1,500m에서 우승하면서 올 시즌 3개 대회, 지난 시즌을 합하면 9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심석희는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모두 2개 이상의 메달을 수확했다.

그는 9월 1차 대회에서 3관왕,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2차 대회에서는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심석희가 굳건하게 정상급 실력을 유지하면서 여자 대표팀의 올림픽 출전권 전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소치 올림픽 쇼트트랙 종목별·국가별 출전권은 월드컵 3~4차 대회 성적을 토대로

배분된다.

남자 1,000m에서는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1분23초487로 레이스를 마쳐 샤를 아틀랭(캐나다·1분23초446)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종목에서 한국 선수는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안현수는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러시아가 6분45초229의 기록으로 캐나다(6분44초799)에 이어 2위에 오르면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연광뉴스

